

제424회 국회  
(임시회)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3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2. 업무보고  
가. 국세청  
나. 관세청  
다. 조달청  
라. 통계청

### 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 ..... 2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2. 업무보고 ..... 2  
가. 국세청  
나. 관세청  
다. 조달청  
라. 통계청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결위 추경안 협의 등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 현안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2. 업무보고

가. 국세청

나. 관세청

다. 조달청

라. 통계청

(10시11분)

○위원장 송언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의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 현안에 관해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각 청에서는 중점 추진업무 및 현안과제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발 관세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교역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미 협의, 국내 피해 부문 지원 등을 통해 대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사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미국과의 고위급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은 경제부총리인 저와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 측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4개 분야를 협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우리 측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향후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국회 및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과 차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등 필수 소요 중심으로 12.2조를 편성하여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의 하방압력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정책기조를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적용 금리를 낮추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은행 현안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해도 괜찮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기재부 현황을 안 하면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2쪽 중점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원 조달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3월 누계 세수 현황을 보면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9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000억 원 증가하였고 올해 소관 세입예산인 372조 9000억 대비 진도비는 24.5% 수준으로 전년보다 0.8%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등으로 소관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대기업 직원 할인판매 비과세 관행 등 과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최근 승소한 사례 등과 같이 고액 불복에는 적극 대응하고 또한 체납 관리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입예산 조달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둘째, 국민과 납세자를 보듬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산불 피해 납세자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려금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지급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소득자료를 적극 제공·활용하는 등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2월 한·사우디 청장회의에서 중동 지역 최초 코리안데스크 신설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해외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세무 컨설팅 신청 편의 제고, 정기조사 대상 선정 원칙 공개 등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 주체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셋째, 내실 있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성실납세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정확한 금액을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지난 3월 말 개통하였고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우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려 주신 덕분에 주거용 부동산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발적 신고 유도 효과를 포함하여 올해 약 1조 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납세자의 실수나 고의에 따른 과다 공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약 8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과도한 자사 제품 할인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세되지 않았던 관행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과세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사들의 경우 23년 귀속 영업이익이 급증해도 24년 법인세 납부액은 오히려 급감하게 된 원인이었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은 준비금 설정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이끌어 내 올해만 약 1조 5000억 원의 관련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배정과 세법 개정을 도와주신 기재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신 기재

부 측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5쪽입니다.

넷째, 공정한 세정으로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고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더 이상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강제금 제도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세무조사를 조사답게 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과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국계 회사에 1·2심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끈질긴 대응으로 3심에서 역전하여 국부를 지켜 낸 것처럼 정당한 과세는 끝까지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과·징수·송무 관련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이 마련된 만큼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신축 추진으로 직원과 납세자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세무서 인력 재배치, 사기 진작 노력 등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차질 없는 세정 집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고광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세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경청하여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관세청 간부 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청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3쪽 업무추진 여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이 현재 처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경제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국민안전과 대외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K-관세행정의 기여와 역할 확대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쪽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5쪽 주요 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무역 조치와 글로벌 무역환경 재편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역장벽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관세 무기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미 행정부의 조변석개하는 관세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관세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과 위험 점검, 무역안보 특별조사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의적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통관절차 지연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 조치와 통관 분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글로벌 환경규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여 관세행정 지원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첫째,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90% 이상이 활용 중인 보세가공제도상의 규제를 혁파하고 최근 K-수출품목으로 부상한 뷰티, 푸드, 패션,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과 수출 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조사의 초점을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여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세수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입액, 환율 등 세수 관련 핵심 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상세 분석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약, 총포류, 위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마약 밀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찰, 해경, 미국 마약 정보기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공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마약 적발에 공이 있는 직원은 적극 포상하여 마약 탐지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경관리기관 간 협업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설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타 국경기관과 협업

분석을 확대하고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의 효율성도 높ی겠습니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해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서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독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예방은 물론 해외 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범위와 성분을 확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산업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무역안보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무역안보 수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수사권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법령 개정을 계속하는 한편 위험관리 고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무역·외환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수입 가격과 원산지를 조작한 공공조달 부정 납품행위 등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예방적 외환검사 활성화, 가상자산 자료 확보 권한 확대, 사건 진행 경과 공유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국산 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국내생산 입증제를 도입하고 우회 수출 원산지 기획 단속과 수출 검증을 강화하며 우회덤핑방지제도 신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세계 관세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아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1차 개최했고 오는 7월 2차로 개최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간의 무역 원활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둘째, K-관세행정 모델을 세계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세계관세기구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는 한편 차기 표준을 선점할 우리 행정의 강점 분야를 발굴하고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 국제기구 진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도국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개도국 FTA 행정 수요에 최적화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을 확대하고 ODA 사업은 브랜드화하여 널리 전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들, 업무보고하실 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임기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임기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

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청은 작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벳 시즌2와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시즌2는 작년에 제시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여 조직 운영 원리로 공고하게 체질화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라는 기치를 더하여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감·현장·행동·속도라는 업무 추진방식을 내재화하여 핵심 전략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벳 시즌2입니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추진하고 조달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까지 도약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백 투 더 베이식 시즌2입니다.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여 공공조달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전략조달을 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운영과 공공조달법 제정으로 공공조달 2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도 조달청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에 조달청은 민생경제 활력 견인과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작년부터 이어 온 네 가지 핵심 키워드, 체감·현장·행동·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벳 시즌2,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시즌2를 추진하며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전략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벳 시즌2입니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 원의 조달사업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단품 물가조정제도 도입,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규정과 지침 약 760여 개와 다수공급자계약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온기도 확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시행 중인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와 공공조달길잡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의 정착을 지원하여 보증수수료 비용을 50%까지 낮추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인증평가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니다.

5쪽입니다.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를 통해 조달기업의 스케일업(scale up)과 도약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재구축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여 신산업 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돕고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망한 혁신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극적인 목표는 수출입니다. 혁신제품 3종 수출촉진 패키지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실증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리고 해외실증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 주관 ODA 사업도 최초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OECD와 공공조달워크숍을 개최하고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 나라장터를 열 번째로 수출하는 등 K-조달의 지평을 넓혀 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전략 백 투 더 베이식 시즌2입니다.

공정·투명한 원칙이 바로 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조사는 강화하고 제재·회피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입찰 시 부실시공 실적은 제외하고 입찰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 입찰은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평가위원 3중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역평가 등 신규 평가기법도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민 안전과 품질 확보에 집중하고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밀접한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품질과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을 배제하는 등 더 나은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제안보품목 비축계획, 회소금속 이관계획, 비축인프라 확충 로드맵의 공공비축 3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25년에 55일분, 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제안보 품목도 신규 비축하여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전략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 조달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 시 적용되는 저출생 대응 가점을 신설하고 적용 범위와 전체 배점도 확대하겠습니다. 최소녹색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며 환경성적표지인증 도입 등을 검토하여 녹색조달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약자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운영과 공공조달법 제정으로 2대 조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자정부시스템인 차세대 나라장터를 3월 31일 정식 개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AI를 활용한 조달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AI 기반 조달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일 통계청장님 나오셔서 짧게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이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통계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통계청은 역동경제와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통계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같음하고 5쪽부터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통계청은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정확한 경제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추진하고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경영을 위해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세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금통계를 60~64세를 포괄하도록 하고 사회이동성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위한 소득이동통계 공표 시기를 2개월 단축하고 연말에는 마이크로데이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 확립에 필요한 고립·은둔 통계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작년에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조사한 옥탑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 현황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 및 사회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기 출생집단의 교육, 소득 등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분석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지역내총생산을 연간 주기에서 분기로 단축하여 올해 6월부터 공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청은 통계데이터 확충과 데이터 허브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 100년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돌봄 시간, 비혼동거 등 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AI 기반 산업·직업 자동 분류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에서는 논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영농기법 현황, 스마트농업 등 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종전 18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융합데이터 확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기존 취업활동 및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항목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통계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현재 11개의 통계포털을 통합 운영하는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 생산의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품질진단 대상 확대 및 핵심 진단을 신설하겠습니다.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에 품질분과위를 신설하였고 보고 및 가공 통계의 승인 심사 항목 축소와 시기를 개선하고 변경 승인을 간소화하는 등 승인통계 관리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수요 맞춤형 특수분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농업통계 작성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한편 응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AI 챗봇, 보이스봇 등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계 연구 및 대국민 통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통계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ODA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통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부산 개최가 확정된 세계통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장관님, 지금 현장의 기업들 사고금액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보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3월 기준으로 4248억인데, 사고금액, 대위변제 금액이지요. 그런데 작년이 정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가 정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 사고율도 옆에 보시면 연율로 계산하면 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기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신보입니다. 지역신보가 24년 대위변제율이 5.66%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액 기준이 2조 4000억이에요.

신보는 어떻습니까? 신보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김영환 위원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기보는 추정에 1000억 넣었지요? 신보를 1000억 넣었나요? 신보를 1000억 넣은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역신보는 작년 기준으로 2조 4000억, 올해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위변제율 배수를 계산해 보면 적정 운용배수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나, 적정 운용배수를 훨씬 넘어서는 보증 공급이, 보증 잔액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단 자체도 위험해요, 신보도 그렇고 기보도 그렇고. 특히 지역신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추정 넣을 때 이 대위변제 계산하시고 넣으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점검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김영환 위원 적정 운용배수를 회복 안 시키면 이 대위변제 금액 때문에 지역신보, 지역 말단 보증 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말단의 어려움이 저는 가중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외평채하기 전에 잠깐 세수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제가 3월 달 드디어 받았습시다. 올해가 45.9조 더 올려 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12월 결산이 작년에 좋았거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23년 대비 24년은 명목경제성장률 좋았고 실질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지요. 그래서 법인세에서 예측한 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저보고 숫자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커요. 그래도 큼니다.

올해 경제성장은 아시다시피 다 낮추지 않습니까? 명목, 실질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도 낮춰 났고, 왜냐하면 총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물가상승률 다 낮춰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소비도 줄어 들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데, 그게 지금 보여요. 그래도 30조 중반대, 후반대가 나옵니다, 플러스알파. 그러면 제가 큰 숫자 얘기하는 것 아닌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2월 달 숫자 보시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3월 숫자 보시고, 조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40조나 37조나 그 언저리에서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도 모니터링을 더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그리고 올해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 기준 바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전보다 기재부가 예측하는 법인세 실적 예측치가 더 안 나올 거다. 그것은 분명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구요.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한국은행 좀 얘기할게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22년 중반부터 쭉 환율이 올라가면서 1400원대 중후반 나왔잖아요. 외환보유고가 한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추가 1분 주시면 안 돼요?

아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콧 베센트가 ‘그들은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등 정부가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어젯밤에 뉴스……

일단 질문 주시면 시간을, 제가 또 위원님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절대로 아니라는 부총리의 말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안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베센트 장관이 답변한 영어 원문하고 질문을 보시면 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 캐나다하고 일본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그런데 아예……

○**김태년 위원** 일본도 선거가 있으니까요, 7월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일본도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태년 위원**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리고 저희가 베센트하고 회담은 20명 이상이 있는 공개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무자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말씀 그 이상도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장관, 알겠어요.

왜 이렇게 협상 서둘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협상은 서두른 게 없습니다, 위원님.

○김태년 위원 지금 기술 협상 들어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것은 실무적으로 모여 가지고 USTR하고 상무부하고……

○김태년 위원 뭐 하러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요?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그다음에 관세·비관세 조치. 이것을 왜 만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을 낼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전혀……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왜냐하면 협의의 틀을 만들어야……

○김태년 위원 잠깐, 시간이……

지금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해 놓은 국가잖아요.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놓고 보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역대 이 정도, 한 100일 정도 기간에서 최저, 40% 언저리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미국 국내 상황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서두른 게 아니고 90일 유예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김태년 위원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발을 빼고 미루고 그러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김태년 위원 일본마저도 7월에 참의원 선거를 핑계로 발 빼고 미루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서둘렀던 이시바조차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이미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대행 정부는 말이지요, 이 협상을 이런 속도로 추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년 위원 민주적 정통성이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국가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중차대한 협상을 이 대행 정부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추호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없고요. 지금 실무 협상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민주적……

잠깐만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가 이제 깃해야 34~35일 후면 출범을 하니까, 인수위도 없어요. 바로 출범을 하니까 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대행 정부는 대해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 측이 요구하면 듣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미 FTA를 맺어 놓은 나라니까, 거의 제로에 수렴이 되잖아요, 관세가.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지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그 상태에서 교착시켜서 미뤄 놔야지요. 기술 협상을 왜 해요, 왜 카테고리 나눠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이 주체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실무자들은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잠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한덕수 총리, 대행…… 무슨 ‘한국의 부는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 때문에 형성됐다. 만 들어졌다’, 보은하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삶,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보은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그리고 ‘방위비분담 협정까지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총리 인터뷰 내용이잖아요. 부총리는 그것 외환 조금 있다고 미국 국채 사는 사람 아니예요?

어떤 국민이 두 사람의 애국심을 믿겠어요? 이 중요한 협상을 잘해라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다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국내 국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년 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뭘 외환이 있어서 미국채 샀다, 국내 국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수장이? 우리 경제 이렇게 힘든데……

지금까지 경제정책 운용해 온 것으로 봐서 실력도 능력도 안 돼요. 이 협상 이 대행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한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협의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확하게 그 단계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원래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틀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틀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새정부가 들어서도 협상 담당자들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노하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 만들어진 틀마저도 부담이 된다고요. 왜 그렇게 접근하냐고.

○위원장 송언석 정부로서는 지금 김태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염두에 두고 국민들한테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경제부총리님, 대통령권한대행 말은 이후에 오늘 상임위 첫 출석이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사령탑이 국정사령탑 또 정치사령탑까지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부적절한 처신도 일부 있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많이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회의는 참석했는데 간담회는 참석 안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거부권 의결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대단히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그 출발이 바로 권한대행이 출발점입니다. 극심한 혼란의 지옥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런 비판을 자초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둘러싸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결정을. 지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임명을 안 한다고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지명과 임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지명은 하위 개념이고 상위 개념이 임명입니다. 상위 개념이 있는데 하위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지요 몸통은 있는데 팔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몸통은 인정하면서 팔다리를 인정 안 하는 꼴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하면서, 그 하는 시점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싼 어떤 기준도 제시된 게 없어요. 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 당 원내대표, 당 대변인, 거기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라고 주장한 그것 외에는 지금 어떤 것도 공개적으로 제시된 게 없는 시점에서 2명을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논제가, 이 혼란이 벌어졌고 어저께는 급기야 비상식적인 그런 헌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처리돼 가지고 그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그 출발, 시초,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감히 지적을 합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관세전쟁의 핵심에는 미중 관세전쟁이 출발점이고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관세 협상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무난히 원만하게 타결 지으려면 중국에는 세세(謝謝) 하고 미국에는 노 맹큐 하는 자세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썽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협의 후에는 자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한국 측에서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라고 밝힌 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최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중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7월 패키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두 달 만에 하는 게 신중한 건가요? 제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상호관세가 90일 유예가 되고 있어서요, 7월 8일이 유예가 끝납니다. 그 상황이 되면 미국이 유예를 연장할지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1차 목표 시점이 그때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최선의 제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언급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쭙보고 같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 패키지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한 달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선출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건데 차기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최선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패키지라고 한 것을 강조한 이유는 저희가 떠나기 전에 많은 국민들께서 5월 말까지 이것을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게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협상이, 협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초까지 일단은 저희가 논의를 해 보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7월 초까지 논의가 끝나는 것도 있고 안 끝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를 분류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최선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조선업 관련돼 가지고 조선업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민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간 간에 이루어진 것들을 강조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기 정부의 포지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드릴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실무 협상하는, 협의하는 데 있어서의 협의의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도 어차피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일단은 시작이 돼야 의사결정을 나중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단계다, 그러니까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장관님, 이어서 계속 하나 더 여쭙볼게요, 한미 통상 협의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홍근 위원 그러면 장관의 발언과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모순된 게 아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베센트 장관, 어젯밤에 뉴스……

○박홍근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제가 들었으니까.

결국은 베센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다른 나라도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원문에 보니까, 저도 어제 발언을 보고 되게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분이…… 트럼프 100일이잖아요.

○박홍근 위원 정치적 상황 등등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박홍근 위원 저는 이게 결국은 베센트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처럼 국내용으로 했다는 이야기인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국내용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서요.

○박홍근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미국 재무부에다가 이 발언과 배경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 정부는 ‘바이든, 날리면’ 또 반복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장관님. 미국 재무부에서 정확한 보도자료를 내든지 입장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로서는 뭔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한 가지만……

어제 저희가 보도해명자료를 냈는데 재무부의 실무자들하고 그거는 공유하고 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배경은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홍근 위원 협의하러 미국 나갈 때 한덕수 대행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전날 저희가 경제전략 TF라고 해 가지고 공개된 회의를 했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만났을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 회의에 있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한 대행이 조속한 협상 타결 지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안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정말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 앞에 꽃길을 깔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또 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보 파악 수준 정도에서 최소한의 어떤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경제수장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국가신인도 사수하고 불확실성 제거하는 거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장관의 공식 직함은 뭐가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가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박홍근 위원 아니, 왜 자기 직함을…… 그게 왜 가정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은 직함이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난번에 있었던 공식 직함은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김수한무, 혹시 그 옛날의 콩트 아세요?

그러니까 이마저도 벌써 이제는 두 번이나 하게 됩니다. 이 직함 자체가 대단한 불확실성의 상징이예요. 두 번씩이나 이 직책을 맡게 되는 것 전무후무한 기록 아닙니까? 이걸 이미 다 예고가 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예측을 전제로 질문한다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대행의 출마 관련해서 사전에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을 걸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어제 국무회의 전후로나 또는 개별적인 만남이나 통화도 진짜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제 국무회의만 참석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대행으로부터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홍근 위원 대통령대행이라는 사람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사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후임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장관은 지난번에 ‘불확실성이 낮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요? 이것 우려 표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박홍근 위원 왜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그러면 불확실성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한 대행의 출마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 대변인이 서면으로 낸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박홍근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대외신인도를 위해서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계시켜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박홍근 위원 정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또다시 비정상적 상황을 스스로 들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걸 적극 만류하고 국민들한테 대행이 지금 비정상적 과도기를 책임지지 않고 나왔을 때에 맞닥뜨려야 되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박홍근 위원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내란 정부의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국정 현안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적해 있는데 계속 대선 출마 간보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대행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도 참 나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물러나면서 뻔뻔하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한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양심의 털끝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정말로? 대행까지 했고 또 대행을 맡아야 될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당을 떠나 가지고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반성도 않고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않고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박홍근 위원 말씀을 못 하시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상목 장관님께서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1월에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총 26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야말로 여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동서가 합심하여 달빛철도를 건설하는 데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작년 8월 14일에 시행됐는데 법 17조에 따라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11일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7개월이 다 되도록 기재부가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차규근 위원 장관님은 대통령권한대행 하실 때 법령상 특별히 정해진 바도 없는 여야 합의를 수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넉넉히, 아주 충분하게 이루어져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도록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조건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조건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질

의를 주셔 가지고 좀 챙겨 봤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신청한 것은 맞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곧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차규근 위원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사업 규모가 13조였고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신 국회의원 수는 13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철도법은 261명이나 참여했거든요. 속도를 좀 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아침에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발표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장관님 의견이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향식 예산편성 제도입니다. 이 하향식 예산편성 제도 도입을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실질화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도를 도입하고 또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부처별 예산총액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두 번째는 예산편성 방식 변경에 따라 예산실 등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처에는 현재 예산실의 예산총괄심의관실과 그 외 현재 2차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재정정책국 등을 이관하고 예산실의 분야별 예산심의관 내 부서는 소관 부처로 이관하여 예산처가 국가 재원 배분을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지원하여 각 부처가 자율편성한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기재부 예산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선출된 권력의 예산배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공성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낡은 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공기관을 전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국제질서가 변화하면서 산업정책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실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국내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서 국내외 금융정책을 함께 다루고 산업정책을 지원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유능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책임지고 편성과정을 챙기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맡겨 둔 채 나 몰라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재부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이 반대만 해서는 누구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참에 그동안 기재부를 향해 제기된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제도와 구조가 가장 적절한지 고민해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장관님, 이 방안에 대한 입장을,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저희 직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한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 당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다 원하지만 재정 당국이 저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은 제가 공무원을 40년 가까이 했는데 여러 번, 여러 가지 조직개편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단위를 누가 할 건지, 얼마나 의사결정을 속도 내게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대통령이 하시든 아니면 내각에서 하든 그런 이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할 문제라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정부재정 문제이기는 하지만 약간 학구적인 내용이라서 부총리는 좀 쉬시고 한은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 분야 육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 문제인데요. 최근에 주요 대선 주자들이 특히 AI 분야에 대해서 100조 원, 200조 원 대규모 정부 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부 주도 성장론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던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내용은 파워포인트 보시는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다. 정부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거대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다. 국가 단위 지원, 대규모 지분 투자, 특히 정부의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이상하지요? 전통적으로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부문에 세금으로 투자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재정의 전통적인 역할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연 재정이 대규모 장기투자를 해야 되는지, 재정이 시장 리스크를 직접 감내해도 되는지, 또 이렇게 국가가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진짜 도래한 건지에 대해서 총재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학술적으로 답을 원하시면 저는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 공공재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할 역할이 있고요 민간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성장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재정이라고 해도 더 나누면 재정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 빚을 많이 지면서 재정을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할 거냐 이런 것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첨단산업 지원에는 사실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부가 특정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접근은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한 분야는 민간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게 맞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기반 조성이라든지 마중물 지원, 규제 개선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부총리님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말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한국 비관세 장벽 21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 띄웠습니다. 환율, 자동차, 30개월 이상 소고기 이런 건데요. 지금 구체적인 협상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아마도 환율 같은 경우는 따로 기재부 간에 논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작업반을 산업부랑 그다음에 USTR 간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7월 8일까지 더 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그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국내에서 국회에다가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또 행정부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제 자체를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세율 협상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고기, 쌀 이런 거는 사실 경제가 아니고 정치 이슈고요. 정밀 지도 반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분명한 건 지금 명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기한 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동하에 항목별로 TF를 잘 구성한다든지 해서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추후 있을지 모르는 협상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세청장님, 지금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 수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PPT 화면 보시는 것처럼 관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5



년간 국산으로 둔갑한 전체가 5108억, 미국에 수출한 중국산 제품이 1235억입니다. 이 수출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산 둔갑 수출을 막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고광호**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이 미국에서 볼 때 대부분 중국산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아주 추락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통관이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우리 기업들의 통관 비용이나 물류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간주돼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제출하는 과정에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강화 방안을 좀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청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대 위원** 장관님, 지금 무역협상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5월 중에 다시 가실 계획이 있나요, 협상하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없고 실무진들만 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실무진은 있고 그다음에 5월 중순에 USTR이 한국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때 한국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오면 저는 만나지 않고요, 아마 산업부장관이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예결위 하면서 우리 부총리님께 질문드린 거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께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계속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상 좋지 않으니 사퇴하시려면 빨리 사퇴하라, 당장 28일 그날이라도 사퇴하라 이런 걸 좀 건의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부총리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본인의 의견은 아니고 신영대 위원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 질의가 있었다라는 건 전달하겠다’고 하셨어요.

전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조실에 얘기는 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진짜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기는……

○**신영대 위원** 총리님께 직접 해야지요, 국조실에 왜 전달을 하세요. 직접 한번 해 보

시지 그랬어요.

뭐냐 하면 아까 박홍근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5월 1일 날 사퇴한다, 30일 날 사퇴한다 하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지금 결국은 우리 부총리님한테 일절 언질 한마디 없으셨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내가 언제쯤 사퇴하고 나갈 거니까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관리랄지 경제를 잘 점검해서 준비해라 이런 언질 자체가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총리라고 3년 동안 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의견들이, 베센트 장관 발언에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바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가 없다.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러면 베센트 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했을까……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 과정에 수십 명이 함께 공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비밀리에 된 얘기를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저는 베센트 장관이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한덕수 총리의 기자회견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뉘앙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걸 한번 읽어 볼게요.

파이낸셜 타임즈 관련해서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 금융 발전, 문화, 경제성장과 부는 상당 부분 미국의 도움 덕분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안보동맹이자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인 서울은 트럼프와 협상에 있어서 상대의 조치에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양측 모두에게 더 윈윈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느낌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리고 우리는 동맹이니까 협상을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또 그런 것도 있었지요. ‘대행으로서 협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밝힌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총리님이나 안덕근 장관님이 협상을 하면서 이걸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는 총리의 이런 발언 자체가 미국에게 이런 시그널을 준 거고 그 맥락에서 지금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내용으로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대화를 나눈 바로는 오히려 이들 정부가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

프레임을 마련해 두고 싶어 한다.

공식적인 이런 발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내용이라고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총리의 그동안의 행동이나 발언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총리가 아니라면 빨리 사퇴하라고 하십시오, 하실 거면. 그리고 준비 하십시오, 하실 거면 제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도 이어서 지금 대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과도정부의 대미 협상에 임하는 인식과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국정 최고책임자인 한덕수 대행의 지난 4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한번 보시지요.

‘South Korea will not fight back against US tariffs’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세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맞서지 않겠다라는 말씀 하셨지요. 2+2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최고책임자가 먼저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상 시작도 전에 미 측에 한국의 최고책임자가 쉽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개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협상력을 심히 약화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 과정에서 한미 통상 관계 특수성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 일본보다도 더 높은 25% 상호관세를 받았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 부당성이라든가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미 흑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익의 96%를 현지 투자로 다 환원을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시대 때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서도 우리가 제일 높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히 전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대미 협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도정부나 민주 선출,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하고 역할에, 권능에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도 부질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협상력만 약화를 시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번에 2+2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고생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협상은 다소 상호호혜적이어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 측의 요구만 많이 부각이 됐고 우리가 미 측에 바라는 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어요. 관세 인하·폐지 부분에 대한 미국 측 답변도 굉장히 모호했지

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한국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제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느끼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금년 1분기에 142건, 작년 대비 30%가 늘었다는 보고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패키지, 7월 8일 시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EU나 일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실은 지금 그렇지 않더군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지 않았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 간 양국 합의에 도달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요구 조건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 주셨어요. 비관세 장벽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큰 피해나 이게 있고요. 보상 문제도 따를 것이고 이해관계자 설득 문제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재정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겠지요. 이러한 복잡한 현안들은 한 달 안에 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7월 패키지, 그리고 7월 8일이라는 시한이 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의 의제로 이번에 채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수출이 크게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과도한 환율, 원화 절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총리께서 이거에 대처는 잘 좀 하시리라고 생각이 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님께서 4월 25일 날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한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협력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협의 채널이 이원화돼 있습니까? 안보 쪽과 통상 쪽이 이원화돼 있고 안보 쪽은 국가안보실에서 하는 거고, 통상은 우리 내각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 채널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고 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께서 최종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도 알고 계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한꺼번에 다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부분은 저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의 기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팩트 시트로 다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2+2 회의 할 때 저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다 전달을 했고 저희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베센트 장관 말씀하신 거는 트럼프 관세 관련, 아니 취임 100일 홍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같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무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저도 오기 전에 지금 안덕근 장관하고 다 확인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7월 8일까지 우리가 논의할 과제가, 논의할 수 있는 과제가 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 주신 게 있으면 제가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환을 같은 부분은 오히려 양국의 재무 당국 간에는 상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걱정하시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잘은 몰라도 미국에서 조선업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NSC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부나 이쪽에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카운터파트가 안보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안보 문제 있잖아요,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이 우리의 협의 창구가 된다는 게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제 얘기는 미국 자체에서…… 미국의 의사결정이 NSC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된 의사결정이 NSC기 때문에 NSC에서는 우리 NSC랑 논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카운터파트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산업부나 이런 데서 관련되고 민간기업이 관련되더라도 창구 자체는 우리 NSC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효 차장님께서 그 후에 미국에 출장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권한대행께서 결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션을 줬지 않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지요. 권한대행께 보고를 했는지는 저는 잘, 당연히 하고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협의 채널을 물어보시니까…… 관세, 통상 관련된 것은 우리 산업부장관하고 USTR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관련된 사항은 서로 연결을 하지만 창구 자체는 미국 자체가 NSC기 때문에 한국의 NSC가 창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NSC 김태효 차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보, 특히 조선업과 연계된 협력 분야의 대표로 참석을 한다 그리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도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 답변은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합의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부총리님, 우리 협상팀이 대선 전에 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고위급이 갈 일은 없고요. 실무자들이 지금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말하자면 협상의 틀을 만드는 작업인 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협의의 틀을……

○**신동욱 위원** 협의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틀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또 인식을 확인하고 이해를, 뭐 그런 부분들이지요.

○**신동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말하자면 윤곽을 만드는 작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는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국민들 우려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미 FTA 추진하실 때 그때 논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국익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지금 정부도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베센트 장관의 기자회견,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인데 이걸 보니까 이게 매체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다른데 이를테면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결실을 맺어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라는 쪽을 중심으로 뽑아 났고 그러나 다른 언론들도 대개 보면 한국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서두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으로 보면 베센트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미국이 조금 더 급한 건 사실 아닙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 느낌은 듭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아까 미국 국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미국 정부도 굉장히 관세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급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세 나라에 같이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

실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은 아주 천천히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센트 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그래서 그 원문을 제가 짧게 보니까요 ‘6월 3일로 예정된 한국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질문 같고. 그러니까 베센트가 ‘이들 정부는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느끼게 해 줄 만한 무슨 언급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그 언급이 이런…… 오히려 한국은 정치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장관하고 USTR이 같이 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대선 전에 무슨 결론을 내리거나 하는 틀은 아니고 적어도 처음에 1차 세팅한 7월 8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1차 타결은 그때다라고 해 가지고 줄라이 패키지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신동욱 위원** 그런데 7월 8일 날 패키지를 만들려면 6월 달에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데 어떤 것을 7월 8일까지 결론을 내거나 협상을 할지 안 할지조차도 지금 과제를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 패키지에는 주한미군 방위비라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그건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방위비는 안 들어갑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환율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환율도 거기에는 별도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면, 환율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환율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인위적으로 너무 환율을, 원화를 약세로 두고 있다 이런 의심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전혀 의심을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시장 개입하고 있는 그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환율 지정 우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동욱 위원 짧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미국도 본인들이 빨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정부와 이렇게 협상해서 성과를 냈다, 이런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당황해서…… 우리가 어제 보도자료 낸 것은 영어로 미국 재무부에 보내 줬고요. 컨펌을 받아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한테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 확인되면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어제,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100일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이, 한국이라고 하지는…… ‘아시아 국가들이 조기에 타결하기를 원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원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묻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아까 부총리께서는 ‘아시아 국가들이다’라고 하고 ‘캐나다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캐나다는 총선이 끝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보니까 재팬만 들어가네요.

○윤호중 위원 어제 끝났어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20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7월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7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유예시한을 넘어서 그 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정부가 빨리하고자 하는 게 선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에 다른 계산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6월 3일 선거, 유예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치일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선거일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요, 제가 베센트 장관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저도 이 문장을 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윤호중 위원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캐나다가 일본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대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윤호중 위원 그래서요 부총리가 미국에서 2+2 협상을 하는 그 시기에 김태효 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윤호중 위원 가서 만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조선업 관련한 협상은 NSC 대 NSC가 했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한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조선업까지 논의를 해 왔다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2에서 조선업 논의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조선업에 대해서 저희 비전을 안덕근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군함 관련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군함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효 차장이 우리 정부 입장을 가지고 갔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공개 협의가 된 내용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NSC 안보부보좌관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윤호중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워킹그룹까지 만들자 이렇게까지 실질적인 협상을 하고 왔어요. 이런 걸로 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부총리가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짓말로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안덕근 장관이, 교수 하시던 분이 정치 얘기를 할 리도 만무하고, NSC 차장인 김태효 차장이 같은 시기에 가서 선거일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태효 차장은 어떤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겁니까? 지금 대통령은 파면돼서 쫓겨난 상태인데……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추정을 해 보면 어차피 대통령이 파면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을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이……

○윤호중 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거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아까 부총리는 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떤……

○윤호중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빨리 서두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

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윤호중 위원**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 국외에 나가서 상대방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직접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간접보고를 하고도 훈령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훈령의 내용을 지금 공개하실 수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가기 전날……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선거와 관련된 훈령은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전혀 없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그 훈령은 NSC 차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과도정부로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각료와 또 대통령실의 NSC 관료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또는 곧 대선 출마를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조금 전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미국에 가서 2+2 통상 협의를 마치고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잘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40일 후에 민주당 정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원들께 공지를 하면서 ‘대통령 1호 법안을 고민하는 민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저께 예결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추경안을 행안위에서 통과를 했고 또—행안부에서는 부동의를 했습니다마는—지금 기재위, 예결위, 원내

대책회의 가리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려고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은 살림을 사는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상품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 보니까 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주당의 아집처럼 보이도록, 왜 이렇게 정쟁 수단으로 변질이 되고 또한 많은 생떼를 부리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되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의 대응 명목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때 3년간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재정 여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지방사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접지역 간의 소비 위축 내지는 지역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상품권을 어떻게 썼나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사랑상품권을 보니까 실제로 서울은 20%, 경기지역 23%, 김해지역은 41%나 대개 다들 학원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그런 차이를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설계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권 가지고 다시 기재부에서는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의심받게 되는 정책을 굳이 자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재명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한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무디스가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아끼자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원로 경제학자는 저희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긴축재정이고 뭐고…… 지역사랑상품권 1조, 2조 하지 말고 차라리 10조를 늘려 가지고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퍼 주고 그래서 돈 퍼 줘서 당 지지가 높아져서 호황을 누리다가 곳간이 비면 베네수엘라처럼 손 들고 파산하면 되는데 왜 국민의힘의 이인선 너는 자꾸 이것 안 된다고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1인당 5만 엔씩 지불하겠다고 했다가 나라 빚에 지친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서 철회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기존에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국민과 기업들이 정말 속이 타들어 가는 시점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와 민생이 계속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을 적절하게 그다음에 미래세대에도 계속 오랫동안 쓰자는 취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퍼 주는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12시 20분 정도에 정회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천하람 위원 대통령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신 게 3월 24일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천하람 위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1일이든 2일이든 사퇴를 하시면 한 달 열흘 남짓 정도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다시 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천하람 위원 이게 대한민국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수준,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했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왔다가 한 삼십 며칠, 40일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온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행정부 장난하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수반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상회담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자리가 한 달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래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대외신인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지금 어찌면 하루이틀 만에 권한대행 자리를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내가 다시 권한대행이 됐다라는 것을 외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

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권한대행이 됐다는 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가 소임을 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보십시오.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출마하실 생각이 있다면 3월 24일에 복귀하자마자 직을 던지고 최상목 체제로 꾸준히 가서 다음 대통령으로 자연스럽게 정권이, 어쨌든 대통령직이 승계 되도록 해야지요. 한 달 만에 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또 봅시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부총리님한테 인수인계 안 하셨다라고 하셨지요? 그 어떤 언급도 들으신 적 없다고 그러셨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연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안보대통령 이미지 챙기고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 수순인 것 같은데, 아무리 최상목 부총리가 기존에 권한대행 해 본 적 있다고 하지만 안보나 이런 부분,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만두는 게 사리에 맞습니까?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 보세요. 벌써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나경원 의원이 쓰던 캠프 사무실을 한덕수 캠프로 쓰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 사무실 알아보는 게 중합니까 아니면 다음 권한대행을 해야 될 최상목 권한대행이랑 국정 상황이나 외교·안보·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겁니까? 캠프 알아보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국익에 정말 저해되는 행동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의는 관세협상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바보가 되어야 된다’, ‘다음 정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듣기만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는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와도 장관 들어오고 뭐 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기업은 한시가 중한데 실무적인 차원의 준비는 열심히 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어떻게 그냥 우리 정부가 바보가 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탓을 하려고 원래 준비해서 왔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출마를 하루이틀 앞두고 있으니까 베센트 장관 나와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진의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부총리도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고 하지만 제가 당장 봐도, 우리 국민들이 봐도 지금 관세협상을 우리 공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이거 한덕수 선거용인가?’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

리 국익을 저해하고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공직자들을 모욕하는 행위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국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부총리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의 통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국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부총리님, 저는 외신에 나온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 부총리께서 미국 협의 당사자셨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포브스지 기사를 보면 기자가 스콧 베센트와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I want to ask about South Korea specifically'.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뒤에 일본하고 질문 후미에 캐나다가 잠깐 언급되긴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다라고 질문을 시작해요.

그래서 '곧 선거를 치를 한국의 경우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전까지는 협상의 마무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나는 반대로 본다', 'I think from our talk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대화를 근거로 볼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센트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대화에 따르면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빠른 합의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없어요? 그러면 없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것은 전혀 없는 게 위원님도 공무원 해 봐서 아시겠지만 배석자까지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회의였습니다.

○**임광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these governments'에서 한국은 빼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한국은, 그러니까 적어도 앞부분에는 자기가 인식은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요.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는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센트 장관이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제가 베센트 장관한테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한 거고요. 적어도 기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를 먼저 주시는 게…… 기자가 질문하는 게 우리가 현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기자가 알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해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지지 기반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베센트에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없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리면 베센트 장관이 저희가 있는 사이에 두 번의 언급을 하셨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계실 때 기자가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하고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베센트 장관이 그때 좀 비슷하게, 세계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재무부에서 서면으로 회의 결과 나온 것은 상당히 드라이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는 질의 관계, 그러니까 Q&A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을 홍보하는 자리기 때문에 준비된 답변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홍보, 국내용으로 말씀을 좀 하신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보도해명자료를 내면서 워딩을 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재무부에 보내서 적어도 재무부의 장관은 아니지만 차관보 이하는 열람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유를 해 가지고 컨펌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뿌린 거고요.

○임광현 위원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장관에 대해서는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났습니다.

○임광현 위원 어쨌든 그러면 베센트가 한 이 말은 팩트가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혹시 미국 출장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조선업의 대미 투자나 또는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니까, 이런 주제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거 자체에 대한 정보나 이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임광현 위원 그러면 부총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전혀 모릅니다.

○임광현 위원 이게 이번 대미 협상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을 모르시고 어떻게 재무장관회의에 가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대강은 아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당국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을 드리면……

○임광현 위원 이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산업부장관이 생각하는 거랑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업부나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그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받으려면, 지금 산업부 에너지실장이 현지 실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 실사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판단을 해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리는 작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팩트 체크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 관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부총리님, 현 경제 상황이 경제위기 또는 경제침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도, 경제 당국자가 정확히 말 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국민들께서 경제나 민생에 어려움을 크게 느 끼고 계실 그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1분기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을 봤더니 -0.2%였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으로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제가 좀 더 들여다본 부분이 전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의 성장률을 보니까 -0.1%, 역성장을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팬데믹 시 기를 제외하고, 아마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한 것으 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특히나 내수 부진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설투 자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성장률을 찾아보니까 -12.2%, 아주 압도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2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지 반등 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내수만, 그러니까 건설 부분은 지금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 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건설 부분은 어려움의 강도가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소비 부분은 사실 실질임금 이나 실질소득이라든지 그 부분은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건 자체는 플 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충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내외 불 확실성 때문에 기업과 그다음에 가계의 심리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 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중 무역갈등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 쟁 이런 대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 부진이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실물적 또는 관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관세협상 협의에 열심히 임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보고 싶은 부분은 취약차주들,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 든 또는 비우량 중소기업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자영업자 연체율을 제가 따져 보니까 대출 연체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기업도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지금 대출 문턱을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데 올해 상반기로 갈수록 기업들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분들의 채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4 회의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사실 매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또 특히 최근에 항목별로 보면 건설투자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방의 건설 부분 이런 쪽에 대해 저희가 재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재정을 포함해서 정책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한은 총재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위해서 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요. 아마 원화표시 외평채 16조 7000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올해 시장에 약 221조 4000억의 국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난해 국고채 발행 규모와 따져 보면 약 63조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아무래도 시중에 국채가 많이 풀리게 되면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은이 가지고 있는 금리인하 기조 또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 간단히 대응이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까지 나온 국채의 발행량은 저는 이미 3년이나 5년 국채에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크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규모 정도는 시장에 반영돼 있는 수준이라 저희 기조 안에서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커질 경우에는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훈 위원** 그러면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 규모 정도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은 단기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에도 관련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당시에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직됐냐에 따라서 발행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경제 어려운 건 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대내외적으로 다 어렵고, 그렇지요?

추경 제가 볼 때는 너무 늦게, 적게, 그리고 내용 보면 부실합니다. 고민을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은 총재님, 평소에 추경 말씀 하셨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12조 규모 정도로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2조 정도면 한 0.1% 정도 성장률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총재님이 말씀하시던 규모는 아니잖아요. 적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1월 달에 정치적인 이슈 있을 때 한 0.2% 정도 하려면 15조에서 20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한 20조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큰데 재정은 이렇게 지금 손 놓고 있고,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아까 세 차례 인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2.75%. 그러면 한은에서 더 추가 인하 생각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경제…… 저희가 새로운 예측을 5월 달에 할 텐데 그것을 보고…… 추가 인하가 아니라 저희가 인하 사이클에 있는데 얼마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5월 달 회의, 금통위를 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정일영 위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인하가 돼야 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당연히 경기가 나쁘면…… 그러나 다만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금리나 재정을 가지고 경제를 다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하여튼 그것 나중에……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금리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보면 기재부, 경제 총괄하는 부총리겸장관계서는 곧 한 권한대행이 그만둔다 그러면…… 내일인가 그만둔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매우 비상식적이고.

아니, 지난 3년간 안전 문제도 있고 경제도 이렇게 망가뜨린 총리, 현재 권한대행이 노욕입니다, 노욕.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권한대행 또 대행이 대행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대행할 때도 그렇게 성과가 좋지도 않았는데요, 최상목 권한 그때 당시에.

그런데 기재부의 실장들 인사 두 사람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실장, 세제실장. 한 사람은 ADB로 간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유력 후보 제청됐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실국장들 제가 어저께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보면 예산·조세·공공정책국장 해 가지고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경제 누가 살립니까?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대행 가시고 밑의 실장들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또 인사를 해서 가 버리고 국장들도 움직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제 다시 말씀드렸는데 실장들은 2년 가까이 했어요.

○정일영 위원 그런 건 알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다음에 실장이 된 국장들은 총괄국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총괄국장 한 분들은 1급으로 올라갔는데…… 총괄국장 한 사람들이 1급 올라갔으니까 총괄국장 자리를 다른 국장들이 옮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바로 옆에서……

○정일영 위원 바로 옆에서. 그것 다 업무파악 된 겁니까, 바로 옆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다 됐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억지 말씀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추경 통과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경제 살리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조기집행 좀 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예비비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국가안보, 외교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전근대적인, 옛날 권위주의적인 군사정부 시대 때 하던 그런 감감이 예비비 다 없애십시오. 투명하게, 국민들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자료 달라 하면 자료 좀 내십시오, 국회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리고 지금 예비비 관련된 건 기재위에서 부대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시기에는 ‘제청을 해 가지고 장관이 원하면 올려 주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특히 마사회장 김경규, 전문성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미대사로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청장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괄해서 답변 주세요.

하여튼 간에 왜곡·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유튜버들 수입 추적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하십시오.

이따 답변 주세요. 이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주시고.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고광호 예.

○정일영 위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 자료 보면 ‘미국 정책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관세청장 고광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그것도 답변을 주시고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전달하라 그랬는데 받으셨습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예, 받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개선 계획 간단히 답변 주시고 구체적인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인데 일단 답변을 좀 주십시오, 청장님들. 국세청장하고……

○국세청장 강민수 국세청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버 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말씀 안 하셔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무튼 철저히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 주십시오.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고광호 미국 관세정책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희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급변하고 어려운 시기니까 기업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관세청장 고광호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조달청장님,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일영 위원 답변을 마이크 대고 하세요. 혼자 얘기하시면 됩니까?

○조달청장 임기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하고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모로 자연스럽게 못한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정일영 위원 그리고 조달청 퇴직 간부들이 가지 않습니까, 4명인가 5명인가.

○조달청장 임기근 예, 그 또한 약간 자연스럽게 않은 측면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협회랑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지금 할 얘기도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진행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이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답변도 마이크를 끄고 답변하는 센스를 보여 주신 조달청장님 감사합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미국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녀오셔서 한덕수 총리에게 사후보고는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직접 보고는 안 하고요. 일요일 날…… 안덕근 장관이 하루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안덕근 장관이 총리께는 보고를 했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가서 만나 보니까 미국이 상호관세니 품목관세니 하면서 우리 한국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준비가 잘돼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한국은 다른 나라…… 아마 베센트 장관이 영어로 A게임이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아까 조선산업이라든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게 많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하고는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성준 위원 글썄, 그것은 좋은데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을 하자고 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2+2 협의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야 4개 범주로 나누든지 어쩌든지 할 텐데 그런 쟁점들이 도출됐냐 이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역수지 흑자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무역수지 흑자를 줄였으면 좋겠다, 균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저는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무역수지 격차를 줄이자면 한국에 뭘 해 달라라고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센트 장관이 확대 균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수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교역 규모는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의 여러 가지 물품을 좀 더 산다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해 가지고 생산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입도 줄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수입도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입과 투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줄일 수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미국의 주장으로는 비관세장벽 때문에 미국 물건을 제대로 안 사니까 비관세장벽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 이 말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그 세 가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겠습니까만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벌어들인 흑자가 사실은 다 미국 현지에 재투자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출로 벌어들인 만큼 미국 현지에 투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다 팩트 시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했을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한국이 최근 2년 동안에 그린필드의 넘버원 투자 국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지 공장을 돌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중간재들이 많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요. 저희가 설명 다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것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품목관세나 상호관세 10%, 그러니까 14%가 유예된 거지 10%는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진성준 위원 이렇게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자유무역협정이든 무역협정이든지를 새롭게 체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관세 관련된 부분이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미국한테도……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FTA 때문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이하의 세율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상호관세에다가, 또 자동차관세는 품목관세가 지금 실제로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장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품목관세도 빨리 철폐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진성준 위원 아니, 그래서 관세 협상이 잘되면 과거 한미 FTA 체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진성준 위원 미국도 그에 대체로 동의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한덕수 총리가 곧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번째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한 달 남짓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잘 관리하실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엄 당일에 대통령을 못 말리셨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말려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2일 날 윤 전 대통령이 소상공인분 만나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계엄을 선포했지요.

얼마 전에 4월 16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프랑스에서 휴지도 샤워도 양치도 줄일 지경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길래. 이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독일과 프랑스의 불확실성 지수가 2024년 12월경 매우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를 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3번에 보시면 정치 불확실성 증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가 바뀌는 과정 그리고 독일도 총리가 바뀌어서 조만간 새 총리가 취임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정책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그 날짜를 보니까, 복귀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4일이겠지요? 그러면 지금 며칠이나 지났나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수하고 계시는데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총리께서 출마를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막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썽요, 뭐 일단……

○최기상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최기상 위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나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한 게 우리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

업이 우리 공동체 최고 가치고요. 존엄의 내용은 결국은 자기실현, 자기 형성의 자유, 권리, 능력이 충분히 보장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의 일이지요.

아시다시피 사람의 일을 물건의 일보다 우선시한다 이게 우리 인류의 지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향한 노동이 물자를 생산하는 노동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인식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묘하게도 물건 만드는 일에는 혁명도 자주 일어나고 새로운 미래가 닥칠 것처럼 야단인데 사람을 돌보는 일이나 생명을 돌보는 일에서는 좀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제부처의 모든 분들이 나오셨으니깐요, 이 수많은 목표가 결국은 사람과 생명을 돌보는 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범은 OO이다’. 이 답은 가난입니다, 가난.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가난한 아이들이 정말 많고요. 또 가난한 노인도 많고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GDP 수치나 경제성장률, 수많은 말씀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 내야 되는데 그에 관한 얘기들이 오늘 현안보고나 업무보고에 충분히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써 놓은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빛을 비추어 어둠을 찾을 수는 없다. 경제팀의 일하는 방식이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찾을 수는 없다, 어둠은 어둠 그대로 일단 직면하고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어둠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이걸 어떻게 바꿔 낼 것인가가 나오는데 혹여 정부나 경제팀에서 일하는 방식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의, 현안보고나 업무현황보고를 일년에 몇 번씩 하십니다만 혹시 작년, 재작년 것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가장 해야 될 일은 결국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일이니깐 그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제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잠정적으로 3시에 속개하는 결로 하되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2시 반에 다시 한번 정확한 시간을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강민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최은석 위원 오늘 업무보고할 때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업무계획 보고하셨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특히 대기업 사주 일가들의 탈세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정보 수집하고 세무조사 할 때도 엄정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아주 중요한 과제 같고.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지금 현재 유상증자 내용에 대해서 언론지상에서 보고 파악 좀 하셨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기사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단군 이래 최대 유상증자 규모라고 하고 3조 6000억 정도 처음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은석 위원 그게 금융감독원에서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 정정 조치를 내렸고 다시 2조 3000억으로 시장 조달 규모를 좀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금융감독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2조 3000억 원을 유상증자한 이후에도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고 또 시장에서 의혹이 있는, 주주들이 볼 때 의혹을 갖고 있는 승계 관련돼서 소명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정정 조치가 나왔거든요.

지금 과세 당국 입장에서 볼 때도 승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탈세나 이런 데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는 건 다 들어다보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유상증자 발표하기 얼마 전에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 1조 3000억 정도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계열사 주식 취득 이후에 유상증자를 이렇게 발표한 되게 특이한 사건인 것 같아요.

보면 지금 한화그룹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금 한화그룹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은석 위원 그리고 한화그룹이 지금 한화에너지라고 하는 김승연 회장의 세 명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화에너지라고 하는 그 비상장회사와의 거래가 이 유상증자 전에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한화그룹이 이런 승계를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열사 간 주식을 거래하고 또 과도한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는 시장의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 보면 국세청장님도 과세 관련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들은 자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어떤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히 자본거래 부분들은 반드시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특히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은데 이런 특정한 한 회사에 혹시, 이걸 저도 잘 모르지만 대주주의 사익 편취 의도가 있었거나 혹시 그런 것들로 해서 탈세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금융감독원에서도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지만 저는 국세청에서도 대주주들의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과세 당국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대주주 사익 편취를 통한 탈세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엄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배경에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졌지만 대기업 사주들의 승계 문제나 탈세나 절세 문제들을 위한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활용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세청에서 잘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승계 문제가 탈세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모니터링과 필요하다면 세무조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맞는 말씀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차기 정부로 이어지더라도 국세청 내에서 계속 잘 모니터링되도록 국세청의 해당 담당국에도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다시 한번 잘 인지를 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강민수** 예, 꼭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충격적으로 -0.2%를 기록했습니다. 역성장이고 2024년 2분기, 3분기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0.2, +0.1, +0.1 이번에 -0.2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국면이 완전히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보면 건설투자 -3.2, 설비투자 -2.1, 민간소비 -0.1, 내수 -0.7, 수입 -3.1, 수출 -1.9, 전체적인 요소와 수입·수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반등의 모멘텀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총재께서 당초에 1.9% 경제성장률 예측을 했고 2월에 1.5%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5월 경제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현재 국면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2월에 했던 1.5%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 1/4분기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해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서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미국 관세정책이 워낙 변화가 심해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낮아질지 그걸 더 봐야 될 거고,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5월 달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재정으로 인한 부양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월 전망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선행적으로 보면, IMF는 2%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했고 씨티그룹 0.8, ING그룹 0.8, JP모건 0.7 등 한국 경제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현재 예측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15조~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0.1% 정도의 경기부양, 반등의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현재 부총리께서는 이번 추경 제안을 한 12조 정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경제성장률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예외적으로 1월 달에 말씀드린 것은 갑자기 계엄 이후에 생긴 불확실성 때문에 추경이 합의가 되면 여야정이 합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신뢰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렸고요.

현 수준에서는 경제성장률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추경 여부를 정하면 그것에 맞춰 저희들이 경제를 예측하려고 하고 평상시에는 한은 총재로서 추경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한은에서 유지하고 있는 금리의 수준도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만일 저희가 5월에 성장률을 낮추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최종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낮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말씀하셨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 2월까지의 집행 실적을 보면 전년도보다 진도율이 더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낮아진 이유와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는 지금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변동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총리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월까지 숫자는 아마 총지출이나 아니면 집행률을 가지고……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2월까지는 조금 낮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날짜가 영업일이 3일인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숫자로 보면 41.7%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1분기 숫자로 보면요.

그래서 작년보다 집행실적이 조금…… 작년 정도 수준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이 역대 가장 많은 신속집행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시겠습니까만 1/4분기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신속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에 재정의 기여율이 작년도에 0.1%고 올해에도 0.1%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플러스로요. 그래서 좀

미력하나마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진 위원** 실제 경제 현장이나 지방에 가 보면 계엄 이후에 상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늦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이 선거 국면이나 이런 여러 과정이 있지만 경제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정되고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는 늦추지 않고 과감하게 세운 결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총리께서 그 부분들도 좀 점검하시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집행 관련해서도 점검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걱정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해서 그 정도까지 성과는 이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신속집행이라는 게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요즘.....

○**위원장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정태호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하고 협상 시한이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이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협상 시한이 아니고요. 미국 입장에서 유예를 한 게 7월 8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7월 8일까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단 1차 타깃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협상 시한이 아닙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7월 8일은 시한은 아닌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그러니까 7월 8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7월 8일까지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7월 8일이 시한은 아닌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아닙니다.

○**정태호 위원** 예, 그걸 분명히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협상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협의입니다, 지금 저희 용어는.

○정태호 위원 협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협의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협의의 컨트롤타워는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이십니다.

○정태호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부총리와 산자부장관은 어떤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저쪽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협의에는 베센트 장관이 수석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카운터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카운터파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협상의 컨트롤타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29일 날, 바로 어저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에서 25일 날 김태호 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결과를 브리핑한 걸 보면 ‘방위산업과 조선업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자료가 배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안보실 김태호 차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고 간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니깐요.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김태호가 갔다 와서 베센트가 하는 말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면 김태호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센트 장관은…… 제 추정입니다, 그것도. 저도 기사를 보고 확인 중입니다마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베센트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트럼프의 100일을,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간에 그 전에 김태호 차장이 갔기 때문에 또 안보실에서 브리핑 자료로 나온 거에 의하면 조선업과 국방 관련해서 진전시키기로 각 양국 안보실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컨트롤타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고 김태호가 가 가지고 그쪽 안보 보좌관을 만나 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분은 경제부총리하고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장관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이 흐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 또는 협상이든 그다음에 외교든 이게 계속 한덕수 출마용 협의, 한덕수 출마용 협상, 외교 이렇게 오해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이, 지금 간사님께서 오해라고 하셨듯이 그것도 추정이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 협의는 지금 상무부하고 우리 산업부랑 USTR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지금…… 오늘도 제가 좀 전에 안덕근 장관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그 자체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하면 7월 8일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정태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7월 8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를 지금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안보실 차장이 가 가지고 조선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얘기를 해 버리면 실제로 협상 또는 협의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실제로……

○**정태호 위원** 그런 협상 또는 협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의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태효 차장이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정태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부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역할 정리를 해 가지고 김태효 차장의 그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파면된 대통령의 비서가…… 월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가 명확하게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하도록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총리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하여튼 메시지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사실상 또 산업부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세요. 엉뚱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권한 행사하는 거를 중지시켜야 제대로 된 협의, 협상이 가능하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하여튼 메시지가 섞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부총리님, 언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협의하고 협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영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의는 컨설팅(consultation)이라 그러고 협상은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이라고 해서 2개가 다른데 언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이렇게 혼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협의지요, 협상이 아니라? 그걸 좀 분명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지난번에 영어로 투 플러스 컨설팅이라고 아예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은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수영 위원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협상과 협의를 분명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언론도 헷갈리지 않도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부담을 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단계 정도를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의중을 얘기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협의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영어로는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컨설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언론에 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재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 심지어 법사위까지도 오늘 상임위가 있는데 전부 이 질문들로 지금 나오고,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몇 번 설명을 하셨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답변이 끊어지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두세 가지 논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원문이 어떻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람들 많은데 약속을 했다는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정확하게 이제 논란이 안 되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센트 장관을 만난 거는 저희하고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 그 회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만난 거는. 그런데 그건 공개회의였고, 우리 측만 해도 15명이 넘었고요 그쪽도 그 비슷한 숫자의 공개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언들은 저희가 언론에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리핑은 외교관도 다 알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비공식 그다음에 비밀 회합은 없었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베센트 장관이 인터뷰할 때의 상황은 기자가 90일 유예기간이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그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도 저랑 같은 인식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홍보 차원에서의 좀 그런 말씀 아

니셨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인데 저희는 다시 한번 경위를 공식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실무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부랑 USTR이 실무 협의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 18개국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단은 그런 프로세스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부장관 설명에 의하면 7월 8일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제, 7월 8일 지나야 논의가 가능한 과제, 아예 논의조차도 어려운 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해 가지고 지금 과제를 분류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협의를 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미국과 협의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G20을 갔더니 많은 나라가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EU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했고요.

○박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공부 많이 하신 이창용 총재님도 계시지만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 내지는 벤치마킹, 그들과의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다른 나라들 대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걸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마 지금 처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우선 협상하는 곳이 일본, 한국, 인도 이렇게 쪽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약간의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게 EU입니다. 그래서 EU하고 독일은 그렇고, 완전히 적대적으로 돈 게 캐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EU, 독일, 캐나다를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만났습니다. 중국도 또 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하고 인도 재무장관 지금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협의하는 거에 또 인풋을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입니다.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통령의 파면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안으로 2 플러스 2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는 미국이라 봐집니다. 관세정책의 혼란으로 주가나 국채나 달러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며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었지요.

반면 우리는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협상을 지연할 명분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 정부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저는 뭐가 그렇게 급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 급한 건 없습니다, 급한 건 없고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유예기간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한 것이고요.

○**황명선 위원** 장관,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안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황명선 위원** 한덕수 대행은 임시적인 권한대행의 위치를 망각하고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비롯한 외교, 통상 현안에 직접 개입하여 통상 전문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호남이나 영남 다니면서 현장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알박기 인사 그다음에 법안 거부권 8회 행사 또 야당과 공개적 대립은 물론 비서실장, 공보실장, 정무실장 등 지금 최측근들이 사직을 하고 대선 캠프를 꾸린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파면 정국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분이 권한대행이라고 보이는데 공정한 심판이 선거관에 선수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이것 맞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명선 위원** 참 개탄스럽지요.

한덕수 대행이 협상 전부터 납작 엎드리면서 시작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 대행의 상호관세 대응 거부나 일본·중국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부정, ‘우리가 성장한 것은 미국 덕분이다’ 뭐 이런 굴종적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굉장히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 대행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까지 재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비준을 마친 사항입니다. 임기 40일 남은 권한대행이 외교·안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재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인터뷰 하신 것은 외교적인 수사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미국 재무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무역장벽 완화와 대미 투자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장관님, 이런 발언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협상 내용요?

○**황명선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직은 저희가 어떤 것을 할지 그 주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명선 위원**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기를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장면이에요.

베센트 장관의 백악관 기자회견 영상을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기자가 한국에 대해

문췌다면서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7월까지의 포괄적 합의가 어렵고 90일 유예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질문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정반대로 보고 싶다. 협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들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하고 싶어 하고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했더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협상팀이 어떤 시그널을 줬기에 베센트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의하는 내용들은 다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국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저희 협상단이, 협의단이 지금 한 30~40명 정도 있을 텐데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명선 위원** 협상을 하면서 어떤 시그널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습니다.

○**황명선 위원**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오히려 정치 일정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우리 국내의 통상절차법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저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기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베센트 장관을 공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협상을 국익 중심으로 서두르지 않고 국회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부총리님이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대통령이 파면된 정권이 국운을 좌우할 중대 협상을 결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그 협상의 무게를 감당할 정도의 정치적 정당성도 국익 수호의 의지도 저는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통상은 권력의 무대가 아닙니다. 국익의 무대입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끝내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역사는 이를 외교 참사로 기록하고 매국 범죄로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국가이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당연히 국익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여섯 분 손 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권한 없는 자가 마이크 들고 설치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NSC 양국이 협력을 한다고 그리고 조선산업을 얘기하고 방위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두 번째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권한 없는 자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마음대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혼선이 나오지 않게, 그런 것은 제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바로 사표 받아야 됩니다.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자들 아닙니까. 어디 협상, 협의 과정에 권한 없는 자가 나서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고 협상 아닌 협상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정부 부처도 지금 가만히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율보고서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환율보고서 나올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한민국이 지난해 11월 환율관찰대상국이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제가 외평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22년 중반부터 고환율로 치솟아 오르면서 외환보유고가 줄었어요. 내용은 뭐 기재부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총재님도 잘 아시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의 고환율 그리고 연말부터 지속되던 이 고환율 상황에 외환보유고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이 고환율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도 고민을 했을 텐데 이 고환율 상황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인의 하나로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미국 금리 상단이 4.5고 우리가 2.75 아닙니까? 그런데 2%대도 우리가 견뎌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하지만 이 고환율 상태를 건드릴까 봐 지금 걱정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여러 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물론 여러 면을 다 보시겠지만 이게 또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니까요.

그러면 기재부장관님,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줄었으면 원화자산은 반대로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환율 상황에서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줄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외평채 변경을 했잖아요. 올해 20조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번 23년도, 24년도, 그때 발행계획 발표를 했다가 행정절차 그것 때문에 발행을 못하고 올해 20조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했다가…… 이게 몇 년 만이지요? 이십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달러 23억 불로 일부를 전환하기로 했어요, 달러 표시 채권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원화 표시 채권이 아직도 필요합니까?

이 외환보유고 추이를 보면 원화자산이, 고환율 상황에서 팔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화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외평기금을 써서 그것 메우려고 하는 거에

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영환 위원 그러면 왜 그렇지요?

예정처도 조달금리 얘기를 하시던데 공자기금 예탁기준 보면 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기재부장관이 하기만 하면 돼요. 굳이 이 국채시장에 어떤 새로운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저는 되게 정책적 모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캐거루본드 있잖아요. 12월 3일 호주달러 4000억 발행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날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호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호주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저녁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속았다, 속았다……

그날 점심 때도 외국의 대통령 한 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4000억 호주달러로 채권 발행하고 저녁에 비상계엄 걸렸어요. 좀 미안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그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만……

○김영환 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만 일단 호주, 그때 발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차관보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김영환 위원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다음에 원화든 외화든 외평채 기금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가용재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또 원화, 외화 부분도 기금운용의 목표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외환보유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관계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보 말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많이 믿으시면 좀 곤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도 보좌관님 말씀을 많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아니, 저는 보좌관 말 잘 안 듣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책임은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외환보유고 자체는 지금 현재 사실상은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기재부장관에 있고요, 위임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송언석 기재부장관의 업무인데 한국은행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반인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소유권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반반씩 가지고 있고요. 개입을 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그래프를 잘 그려 가지고 했는데 그 그래프에 얼핏 보니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사이에 거의 한 600억 불 정도가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프에 의하면. 그런데 그때 1년 사이…… 그것도 그냥 죽 계속 내려가는 식으로 지금 그래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당시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세 번씩 올릴 때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개입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미국의 금리인상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환율 질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어서 그 당시에 막았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이창용 총재님, 그동안 중심을 잘 잡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간 일이지는 하지만 현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졌잖아요. 이게 1분기 경제성장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지난 4월 통방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했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홍근 위원 5월 말에 있는 통방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 지표들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금융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규모는 너무,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규모가 작고 늦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향후의 경제 전망,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다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2차 추경의 불가피성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느냐를 우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올리게 되면 이 효과가 일시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만일 올해 추경 규모를 다시 생각한다면 올해 많이 올려놓으면 내년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내년 성장률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당연하지요.

5월 29일 통방이 대선 5일 전에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은이 그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짧은 것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때문에 강남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요동친 바가 있는데 그때 다시 재지정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물어 왔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홍근 위원** 이게 결국은 2월 25일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주 큰 요인은 아니었지만 일부 요인은 됐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것 또한 정부 정책 엇박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국은 그렇게 하던데, 중앙은행이 부동산정책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시스템을 갖춰 놔던데 제도개선은 필요 없을까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협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케이스는 이번에 F4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실제로 그 역할을 했었고 만일에 제도화시킨다면 현재 하는 F4 회의를 통해서 거시 안정성 정책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의 그런 잘못된 정책 판단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의 보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최상목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끝나는 바람에 목표 성과 달성 못 해 아쉽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홍근 위원** 그런데 내란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의 행위가 결국은 경제 목표 달성 실패의 길로 내몬 것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원망 같은 것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원망……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정부가 원래 임기대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홍근 위원** 취임하실 때 미래에 만들 씨앗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경제팀은 곧 최상목의 성과와 직결됩니다, 경제수석으로 또 기재부장관으로.

지난번 안 오셨을 때 GDP 순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어떤지, 국세수입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역대급 세수결손은 얼마나 초래했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연속으로 감소했는지, 특히 청년 실업자 문제 등등을 제가 그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소득도 7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그래서 IMF가 일인당 GDP 4만 불 달성을 2년 늦춰서 2029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팀 최상목 장관이 씨앗 남기고 싶었지만 결과는 다 잡초로 자라고 말았다고 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그 평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끝으로 제가 오늘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또 기재위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덕수 대행하고 최상목 장관이 결과적으로 경제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고 국가 통치체계도 안정성을 다 뒤흔

들었다고 봅니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했지요, 특검법 등 거부권 많이 했지요,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안 했지요, 결국 이게 윤석열 조기 파면을 막는 결과를 낳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구나 한 대행은 알다시피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도 계속 헌법재판관 위헌적으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더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도 이게 수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대행을 내일 이후에 맡게 되실 가능성이 현저히 농후한 것 같은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실 텐데 그런 점에서 장관께서 정말 대선에 대한 공정한 관리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국정을 악용하고 이용해도 되는지 저는 진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대행이 바통을 다시 이어받으실 최 장관, 최 부총리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얘기가 안 들어왔다는 것도 또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오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것만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내일 물러난다, 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 납득이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국민 상식에 진짜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가요? 나는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보려고 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저는 저한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왜 다시 최 대행한테 그 짐을 떠넘기느냐고 말씀드려야지요. 지금은 국가신인도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과도기 정부에서. 그것 같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지난번에도 총재님하고 만나 가지고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두 분이 설득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정리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지금은 누구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나 불리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조금이라도 그런 불확실성이 없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다 그냥 입을 다물고 계세요?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인건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마 고정성이 인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공공기관 인건비가 이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재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지요? 어떤 계획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별로 임금체계나 수당이 더러 다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총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공공기관별 특성 그다음에 인건비 관리체계 개편 방향 그다음 민간의 대응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작년 12월 5일에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말씀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나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등과 관련해서 공운위에서 보고되고 논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논의 중입니다.

○**차규근 위원** 논의 중인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의원실로 전국의 5개 지역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기업은행노조, 가스공사노조가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답답한 마음을 오늘 장관님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마 민간에서도 이것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 관련되는 검토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차규근 위원** 총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1월부터 20조 원 추가 재정지출과 10조 원의 세입경정을 통해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성장률 추가 하향,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실적, 감액예산안 통과 등 모두를 고려한 규모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과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서 내수 침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조 또는 20조 원 추경 규모는 성장률을 0.2%p 올린다고 밝히셨는데 이번에 기재부는 12조라는 아주 작은 규모의 좁쌀 추경을 가져왔습니다.

총재님, 현재 편성된 12조 2000억 원에서 더 증액하거나 또는 2차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여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을 하면 올해는 분명히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것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성장률만 많이 올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년 성장률은 민간이, 내년에는 정부가 성장률을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 성장률이 올라가서 괜찮은 건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을 거니까 무조건 추경을 많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규모를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올해 성장률이 얼마가 될 거고 내년도 성장률이 얼마가 될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올해 30조를 하시면 내년도는 30조 이상으로 해야만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30조보다 적으면 성장률을 잡아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연초에 30조, 저희 조국혁신당이 30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거기에 전제해서 말씀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요, 그게 꼭 액수가…… 2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조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20조보다 못 하면 음의 성장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률을 올려 주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것의 한계를 알고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판단할 때 올해 한 해만 보지 말고 내년도에 주는 함의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총재님께서 당초 15조~20조 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추경안이 제출되었기에 거기에 대한 총재님 의견을 여쭙본 것입니다. 성장률 둔화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이 필요합니다.

○차규근 위원 물론 총재님 말씀처럼 또 내년의 그것 고려해서 감안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2차 추경도, 새 정부 들어서서 신속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짤막하게 정리 좀 하고 싶은데, 베센트 장관 발언 관련해서 원문도 보고 또 좀 전에 임광현 위원님 원문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우리 경제팀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국내적으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석간에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역 협상 관련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찾아온다, 우리는 협상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말하자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세를 정할 수도 있다, 상대국이 빨리 안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내국인들에게 갑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일종의 심리가 미국 정부에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인들을 위한, 내국인들을 위한 레토릭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신동욱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오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요.

외환보유액 보면, 아까 그래프를 너무 폭포처럼 떨어지게 표현을 해 가지고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4000억 불 쪽으로 좀 줄어드는 것은 지금 사실이잖아요, 총재님. 그렇지요? 이게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까?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총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액으로 치면 8위나 9위를 하고 있어서요 저는 4000억이라도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4000억’ 그러면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있습니다만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외환보유고는 충분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환율의 변동 폭 이런 것을 보면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동욱 위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경제가, 지금 국외 평가사들도 그렇고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신동욱 위원** 그런데 대외적인 요인으로 보면 무역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는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사실 우리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이번에 IMF 전망치를 보다시피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무역분쟁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교역 규모가 줄어들어서 성장률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의 하나기 때문에 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환율하고 이 얘기를 묶어서 보면 미국이 환율 협상을 하자 그러는 게, 지금 우리가 대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균형의 상태라고 보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사실 환율 문제에서는 조금 전에 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최근에는 거의 환율이 절하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환율을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을 이야기하자고 제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최근 2~3년간에는 환율 절하를 막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 무역 적자에 환율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압박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 이번에 저희하고 미국 재무성과 논의를 같이 하게 된 것이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고 제가 인터뷰 때 했는데, 그 이유는 트레이드를 하거나 정치 쪽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원화가 얼마나 절하됐나 그것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텐데 사실 전문가 집단인 미국 재무성 쪽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절하를 막는 쪽으로 개입을 많이 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전문가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총재님,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경제성장률을 보고 금리 문제를 결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기본적으로 한미 금리 차가 환율이 주는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대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환율시장의 움직임과 금리 차가 가져올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저희 경기와 금리, 경기와 환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 저는 재정을 일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만 가지고 하거나 금리만 가지고 하기 어렵고 재정은 많이 쓰면 올해에는 좋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재정으로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올리기는 저는 어렵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양을 결정하고……

○**신동욱 위원**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미국 금리도 봐야 되고 우리 경제도 봐야 되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리 경기가 첫 번째고요, 우리 물가와 경기가 첫 번째고 환율 이런 것을 보조로 보고 있고요. 재정은, 지금 양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재정은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오전에 이어서, 외신에 나온 내용들하고 또 정부에서 밝힌 내용들하고 좀 달라 가지고 팩트 체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월 24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인데 여기에 보면 스콧 베센트가 뭐라 그랬냐면 ‘The South Koreans, came early’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이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찍 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도 저희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의, 한국하고의 협의 내용 보고를 받기 전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베센트보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니까 얘기를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agreement of understanding)’이라는 말 자체가……

○**임광현 위원**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여기의 뉘앙스가 자기들은 한국이 국정 공백도 있고 해서 협상에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 일찍 온다니까, 한국이 더 적극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그렇게는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러니까 일찍 온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일찍 온 것은 일찍 오라고 하는 다섯 나라 중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바이트(invite)한 거거든요, 하자고 온 거고. 그렇지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이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보통 MOU라 그러면 메모랜덤(memorandum)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을 어떻게 어그리먼트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통상 전문가들이나 우리들도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언론인들도 ‘아, 이것은 베센트 장관이 현장에서 옆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즉석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언론에서는 최고의 제안이라고 해석을 했고 원어는 ‘A game’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최고의 제안을 들고 왔다, 이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A game’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먼저 시작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부분은 조선 관련돼 가지고, 조선 관련돼서 우리가 협의할 때 안덕근 장관이 한국하고 미국 간의 조선 분야에 서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게 그게 크다.

○**임광현 위원** 조선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한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4월 25일 자 로이터통신을 보면, 여기에 보면 트럼프는 ‘3~4주 이내에 완

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님, 부총리님께서서는 ‘7월 8일까지 협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3~4주면 5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의 어떤 진행 중인, 아까 말씀하신 게 주제 정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당사자로서 5월 중순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늘 안덕근 장관도 아마 법사위에서 답변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18개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말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지의 4월 27일 자를 보면, 여기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래스카 플랜트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이터통신 4월 24일 자에 보면 ‘트럼프가 6월 초에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고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LNG 프로젝트의 참여를 공식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래서 2개의 서로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뭔가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LNG 개발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것은 미국이 아마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미국 측에 얘기한 것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정보가, 알래스카 주지사도 오시고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임광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아직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실사단이 한국에서 가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임광현 위원 그런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을 안 드셨는데 다 질의하시겠지요? 이인선 위원님도 하시지요?

○이인선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이인선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송언석 예, 먼저 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이창용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얘기하면서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5만 엔,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겠지요. 현금 지원을 추진했다가 결국은 일본 재무성은 반대를 하게 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요미우리신문에서는 70% 정도, 교도통신은 50% 정도가 반대를 하면서 어쨌든 현금 지급을 스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이인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12조의 추경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부족하니깐 15조를 하자,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나면 제2차 추경 30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지난달에도 2.7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어쨌든 동결을 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런 긴축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재정정책의 확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이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상품권 문제는 재정의 규모라는 문제보다는 다른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누리상품권이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저는 이것이 너무 정치화돼서 너무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상품권을 주면 재정 규모도 문제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첫 번째, 이 상품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온 국민 전체한테 줄 필요가 있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만 줄 거냐 그 문제도 하나가 정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품권을 주는 것이 소상공인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뜻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조를 보면 이런 상품권을 주면 위원님께서 아까 학원 얘기도 했지만 사실 온라인에 있는 장사 잘되는 자영업자한테 갈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을 걱정하기 이전에 이 상품권을 온 국민한테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타깃해서 어려운 사람에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권을 줬을 때 주기로 했던 목적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데 쓰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이것이 지역사랑이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상품권 전체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추경의 그 내용에 따라서 대상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아까 말씀했지만 내년도에 미칠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도대체 세금은 늘리지 않는데, 세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재원은 자꾸 필요하게 되고 이런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우선 쓸 때는 잔치가 막 벌어지지만 결국 계산은 국민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도 보면 기재부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지금 은 지사지만—‘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감세는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경제는 말이 아닌 일머리로 봐 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관세청에서 나오셨나요,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고광호 예.

○이인선 위원 관세청장님, 지금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한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가장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본관세 10%에서 시작을 해서 각각 미국 쪽은 145%를 물린다 그러고 중국은 125%로 이렇게 서로 대치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청에서는 우회 관세가 돼서 국산 택갈이를 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관세청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우회하는 그런 나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세청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은 조기 대선에서는 사실은 통상·경제·외교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될 테고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인물이 결국은 대선의 마지막,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교적인 인식이 통상하고 관계가 많은데 보면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면 중국한테도 세세, 대만한테도 세세. 무의미하게 대답해서는 곤란하고 진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통상하고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세청장 고광호 관세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집행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지 관세청의 어떤 관세 집행,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단속하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요즘 최근에는 실적이 좀 많으시지요?

○관세청장 고광호 예.

○이인선 위원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요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과기부 쪽에서 이번 추경안에다가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의 증액안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슈가 있다고 해서 기재부가 무조건 증액을 하고 이럴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예산들을 죽 살펴보니 23년도에 641억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621억, 올해는 579억으로 2년 만에 62억이 감액이 됐고 이번에 어쨌든 해킹 사태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기재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중대성이나 필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의사결정하고 계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당연히…… 지금 저쪽에서 차관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도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이번 유심 해킹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태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기존의 해킹 피해, 개인정보 유출은 주소가 털린 거라면 이번에 유심 해킹당

한 것은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털린 것과 다름이 없다. 거의 모든 것을 다 꺼내 갈 수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이런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국세청장님, 잘하신 일은 또 잘했다고 평가를 해 드려야 되니까. 최근에 보니까 론스타 사건 승소를 하셨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번에 2500억 정도 되는 사건을 1·2심 패소하셨던 것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 같은데 지금 세수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송무하는 쪽에서도 아마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충분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송무 업무에 대한 투자나 송무 업무에 대한 특히 어떤 평가나 실제 잘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는 요즘 가면 갈수록 국제소송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특히 다국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업무보고에도 잘 작성은 해 주셨지만 소송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형태로 청장님이 직접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물가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오전에 보여 드렸던 기사인데요, 혹시 총재님도 이 기사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어떤 기사가…… 안 땀습니다.

○**최기상 위원** 안 땀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프랑스의 소비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계란값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난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은 우리보다도 GDP가 높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기재부 업무 현안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체감물가 안정 총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총력.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먹거리나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해서 조금 문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지금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께서 말



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물가 수준을 낮출 때…… 저희가 보고서를 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력요금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것들은 좀싼 편이고요. 저희들이 비싼 요금들이, 생필품으로 말하자면 농산품 그다음에 주거비 그런 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조조정 없이 통화정책만 가지고 인플레이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높은 물가 수준을 잡는 데는 통화정책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다음에 농산품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 할 때 저희는 당연히 수입을 거의 안 하는 품목 같은 건 수입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항이 굉장히 심하지요. 그냥 각자가 다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수준은 어떤 정책 하나로 하는 것 없이 다방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부총리님도 지금 8페이지에 체감물가 안정 총력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먹거리, 석유류, 공공요금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먹거리 부분에 한정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더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먹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는 좀 인상을, 이게 어차피 비용상승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좀 단계별로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가,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더라는, 저희가 그런 노력도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산물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충격들이 좀 적도록 제가 수입 포함해 가지고 비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과 농장을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냉해 피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에다가 그다음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경쟁 압력을 좀 더 제고하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저희가 유튜브를 하나…… 아닙니다.

마지막 PPT 보면, 도매시장 유통체계 관련한 걸 보다 보니까요.

혹시 한국은행 총재님, 이 부분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유통체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품에 따라서 유통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유통하는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마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경제부총리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참고로 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시겠습니까만 산지하고 가깝게 있는 소비자들이 도매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오프라인이니까 만약에 가락동 농산물시장까지 물건이 갔다 오면 수송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를 하니까 그만큼 마진이 줄더라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는 유통 단계를 단순화하는 것보다는 유통 단계를 다양화되 유통 단계별로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하게 해서 유통 단계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장관님께 질의를……

아까 론스타 승소했다는데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슷하게 어제 질의했는데 답변 안 주신 것, ISDS 삼성물산 합병 예비비에 반영됐다고 이야기하셨고 자료로 주지는 않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 자료를……

○오기형 위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상권에 대해서 행사를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아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보니까 복지부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바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하여튼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세수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분기 세수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진도율이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본래 작년 국고 수입이 336.5조인데 올해 예산안에 382.4조, 약 46조의 갭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적어도 분기별로는 10조 이상씩 더 건혀야 되는데 이번에 5.5조 더 건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1년 지나면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한 20조 갭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하방압력이 세지 않냐라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런 정도면 추경할 때 실은 세입경정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3월 달 실적 나온 것은 예산 대비로 보면 다행히 작년보다는 좀 나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 주셨고 오기형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방 위험은 분명히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 3월, 4월, 5월 정도까지 세수를 좀 봐야 전체적으로 세입경정할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은 저희가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기형 위원 경제수석 하실 때나 장관님 하실 때나 추경에 대해서 하도 소극적이어서, 세입경정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계속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 말씀 드립니다.

총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제도화하자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 좀, 지난 4년 반 동안 F4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 경제팀이 독립되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저희들은 총재님 말씀에 대해서 실제 공감도 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의 방향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굴러왔는가, 운영돼 왔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기재부 국제국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저희가 외환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외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룬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 규제 체제 안으로 갖고 오는지에 관한 논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정리되면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리고 두 번째, 저는 F4 회의는 사실 추경호 부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계속 이끌어 오셔서 저는 F4 회의가 사실적으로 다른 사람 없이 아주 진솔하게 서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서로 교환하고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비밀스러운 얘기를 자유롭게 해서 거기서 어떠한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처음으로 만든 시도고 실제적으로 잘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과가, 그것을 통해서 공과라기 보다는 저희가 평가받는 것보다는 경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오히려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초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실제 신속한 내란 수습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당시에 몇 가지 내란 수사 같은 것 방해하셨고 실제 상설특검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고 그 논란이 계속 휩싸였었고, 추경 같은 경우도 진작 하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약간 느장 대응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기대와 좀 달랐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 전체적으로 경기 하강 관련해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론 어떤 면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F4 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사건으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현재가 작동하지 않고는 경제, 엑시트(exit)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경제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어렵지만, 저는 최상목 부총리께서 그때 2명이나 3명이나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현재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 상황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줬다는 점에서 저는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명 했냐 3명 했냐, 늦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현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점이 있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역사적으로 최부총리 일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추경이나 이런 문제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느

냐는 다를 수 있지만 예전에 한은과 기재부 수장 간 얼마나 협력이 안 됐고 또 서로 다른 견해를, 협조하지 못했던 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사실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이 만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두고 협조하는 체제가 된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고 여러 면을 봤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협조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추가질의 없는데……

○오기형 위원 없나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언석 하세요.

○오기형 위원 그러면 잠깐만 줘.

총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2명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쁜 상황을 돌파하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잠깐만요. 오기형 위원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마이크가 왜, 어떻게 됐지요?

계속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그래서 실제 그 지점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제가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란 관련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닌 상설특검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추경 관련해서 시점을 조절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난 4개월 내지 5개월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난하게 힘들게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후과가 하방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경제가 더 터널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 말고, 2명 임명했던 것 말고 나머지 지점까지도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실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

다른 견해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F4 회의를 여쭙보니까 저는 F4 회의가 그 상황에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체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성호 위원 예, 짧게.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나 이창용 한은 총재님 또 뒤에 계신 공직자들 고생 많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IMF라든가 또는 금융위기 상황 때보다 요새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대통령이 지금 부채한 상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 현안에 관련된 질책이라든가 또 의견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내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 공직생활 언제 시작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86년에 시작했습니다.

○**정성호 위원**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에 박근혜정부 이후에 잠시 쉰 때,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직 시작 또다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게 독일 말로 엔데 굿, 알레스 굿(Ende gut, alles gut)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때 같아요. 그동안 나름대로는 소신과 원칙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를 잘하셔야 돼요.

평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위헌·위법의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돼 갖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되고 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또 탄핵돼 갖고 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또 총리의 직무대행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총리가 복귀하니까 다시 부총리가 됐지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총리가 또다시 역사상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또 대통령권한대행 또 총리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위치에 선다고,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국내적으로도 내수도 최악이고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얼마나 무역이 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후과는 너무너무 클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갔다 오서 갖고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고 그랬지만 많은 우려들을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재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평가는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물론 우리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세 분 중에 두 분 임명해 갖고 8명 체제로 가 갖고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춘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시키게 한 데 대해서는 저는 부총리의 결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분 임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위헌이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가 그래도 2명 임명해 현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역사적 공로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는 있지만 이제부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다 끝나고 또 총리가 다시 사임을 하게 돼 갖고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하면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

에 뒤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좌우고면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익, 우리 대한민국이 난파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부총리와 한은 총재, 앞에 계신 청장들, 뒤에 계신 공직자들 손에 있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책무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평가는 역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거예요.

저는 부총리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연도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30년 넘는 공직 생활의 마무리가 정말 지금부터 한 달 사이에 결정된다.

총리가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다음 대선까지의 그 전반적인 상황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 문제들, 여러 가지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역사에 비추어서 진짜 부끄럽지 않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권한대행 하는 동안에 여기 기재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많이 못 드렸지만 정성호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전화 통화도 하면서 또는 메시지 주시면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 혹시 저한테 다음에 또 어떤 시련이 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부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부총리, 장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답변이 아주……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좀……

○**위원장 송언석** 예?

○**차규근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송언석** 저도 얘기 좀 합시다.

답변이 아주 좋았는데 시련이라는 말이 무엇을 표현하는지가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차규근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차규근 위원** 총재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재님께서 최상목 장관께서 연말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한 것,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에 반하는 처사였고 가사 조금이라도 의미 있다 하더라도 2월 말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은 그 행위,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최상목 장관이 연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명만 임명한 것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안이한 인식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총재님, 사적으로 장관님 만나실 때 그런 위로를 해 드리면 몰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통상협의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의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이 네 가지 의제는 베센트가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줄라이 패키지는 우리 쪽에서 제안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중의 핵심은, 이 협의의 핵심은 부과된 관세 자체를 철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의 하나 지금 시한이 있는 게 상호관세고 그다음에 품목관세는 가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이 7월 8일까지 유예가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떤 걸 논의할지에 대한 것이 패키지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저쪽에서는 네 가지 의제를 제안한 거고 우리는 줄라이 패키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개념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말씀하신 환율 부분은 별도로 하자……

○정태호 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우선 이 줄라이 패키지와 4개 의제에는 방위비는 당연히 빠져 있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환율 빠져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줄라이 패키지에는 환율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여쭙보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 환율이요……

○정태호 위원 저쪽에는 환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줄라이 패키지에는 환율이 빠져 있는지를 여쭙보는 거지요. 방위비는 당연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줄라이 패키지 안에 환율이 들어가는데 환율을 논의하는 당사자는 재무 당국 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관세·비관세는 협의의 파트너가 어떻게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거기 보면 관세·비관세나 투자협력, 경제안보 이 세 가지는 전부 산업부랑 USTR입니다.

○정태호 위원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은 USTR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산업부입니다.

○정태호 위원 산업부.

그러면 환율 부분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무 당국 간에 합니다.

○정태호 위원 재무 당국 간에.

그러면 기재부하고 같이 하게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품목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우리 목표는 품목관세,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적용하지 않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품목관세 적용, 그러니까 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베센트의 입장은 뭐였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를 원래 내기로 돼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도 원래는 품목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다가 또 지금 메시지 나온 것 보면 좀 유연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또 목표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여하튼 그러면 품목관세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테크니컬 협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당연히 지금 하겠지요? 이번 주부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리어가 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요. 그런데 논의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품목관세에 대해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게 지금 기술협약과 그다음에 그리어가 왔을 때 산자부장관님하고 그 부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지금 논의 과제 자체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품목……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부분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철폐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태호 위원 철폐하는 걸 목표로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는 자동차가 되게 중요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것은 당연히 협상의 대상이 돼야, 의제가 돼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투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 줬었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를 시작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미국 측에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정보를 알려면 저희 쪽에서 누군가가 현지에 실사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산업부에서 실사단을 가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사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동의를 한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걸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통계청장님, 지난 4월 17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통계 조작 102회에 달했다.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 통계, 고용 통계까지 전부 왜곡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이형일 예, 봤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참 진짜 어이가 없는데 횡수도 횡수지만 집값 같은 것, 예를 들면 2018년 8월 달, 전주에 비해서 0.67%가 올랐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것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평가하는 4개 지사가 있는데 4개 지사의 지사장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 정말 기도 안 잡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확정치 통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고 지사장 중 한 사람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통계를 마사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중심 잡고 일합시다’ 이렇게 답을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출한 통계에는 가짜 통계라고 연필로 적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다 드러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조사한, 전주보다 1.2%가 올랐는데 부동산원과 국토부에서 압박을 해서 0.67로 냈고 실제로 이 마사지를 하고 나서는 0.46% 올랐다고 냈고요. 그런데 최종 발표는 또 그보다 0.01% 더 낮은 0.45%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게 1.2니까 절반 이상 더 낮게 해 가지고 통계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통계청장님,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들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통계청장님은 통계청에서 한 통계만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통계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표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처음에 승인 신청이 오면 그때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성 과정 안의 디테일한 부분은 그 기관에 맡겨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가고 언론에 밝혀지고 이러기 전에 우리나라 통계를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고, 그 통계의 내용 안에는 바로 부동산도 들어 있을 것이고 소득 통계도 들어 있을 것이고 고용 통계도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02번이나 왜곡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5년에 한번 들여다보기 때문에 몰랐다’ 이게 정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가 승인한 통계가 1300여 개가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경우에는 핵심 프로젝트로 해서 따로 핵심 진단도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부동산원은 주택이고요,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소득 통계, 고용 통계도 왜곡됐다고 하는데 주택을 예로 들면 주택 통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도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져 있습니까?

○통계청장 이형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이 통계를 어떻게 앞으로 더 끌고 갈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통계 작성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하러 오면 그때 저희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는 그건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지만 ‘용역한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폭탄 돌리기, 내가 과장일 때, 내가 국장일 때 용역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던져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택, 소득, 고용 이것 얼마나 중요한 통계입니까?

저는 청장님이 더 프로액티브(proactive)하게 이런 문제는 좀 잡고 들여다보고, 지금쯤이면 이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2018년 건데 지금 용역하고 있다, 그것도 공범인 국토부에서 용역하고 있다, 이걸 용인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중요한 주택·소득·고용 통계가 왜곡되면 누가 국가 통계를 믿겠습니까? 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힘이 달리면 부총리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총리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해서 통계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02회 통계 조작, 부동산, 소득, 고용.

이것 청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저희가 국토부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득이나 고용 통계를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 저희가 상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소득이나 고용 통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동안 그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통계 생산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했는데 감사 결과에 그 소명한 부분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피감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 작성 과정에, 공표 과정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있는 부분을 살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거의 3년 살살이 뒤져 가지고 했다고 나온 게 그 결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로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무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조작 감사

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미 몇 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고 또 선고유예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감사 결과 그 자체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통계청도 고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하고 그랬습시다마는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다른 사안이 있어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짧게……

○위원장 송언석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오기형 위원 202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오늘 안건이 상정이 안 됐는데 조속하게 결과보고서를 상정해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가 와서 2023회계연도 세수 결손과 그 대응 과정에 대해서 국감 과정에서 논의했던, 감사원의 감사청구나 재정청문회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의견을 막 개진을 하면서 하시던데, 기재부가 이걸 반대하면 감사보고서 채택도 안 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작년에 세수 결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회에서 할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 제대로 다 넣어 가지고 세수 결손이나 그 대응 과정에서 확실한 반성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오기형 위원님…… 하여튼 다음 전체회의할 때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오서 가지고 통계청장님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또 그 정황을 알고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한은 총재님께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최근에 몇 달간 계속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경제 분야가 관심 영역 밖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어떤 압력을 떠나서 향후에 우리가 먹고살아 갈 먹거리 성장엔진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성장엔진을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경제 하는 사람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워서 앞으로 성장동력을 다시 한번 확보를, 회복을 할 건가. 그리고 또 그런 성장동력을, 엔진을 다시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제를 둘러싼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점점이 필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선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정치권은 선거에 앞장서서 가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관료를 비롯한 경제권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누구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미래만을 생각하고 국익만을 생각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은 직원들하고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몇 달 내에 저희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저희 보고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김태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26인)

구자근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동욱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차관보 윤인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세제실장 박금철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조세총괄심의관 조만희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기획협력국장 권태용  
발권국장 김기원

국세청

청장 강민수  
차장 최재봉  
기획조정관 김재웅  
정보화관리관 이성진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민주원

관세청

청장 고광호  
차장 이명구  
기획조정관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 하유정  
조사국장 이종욱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조달청

청장 임기근  
기획조정관 전태원

통계청

청장 이형일  
기획조정관 허승철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25. 4. 2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이상 5건 4월 24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이상 3건 4월 25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4)

이상 3건 4월 2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부령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125호	제정	기획재정부